

# 文대통령 “내 고향 무너져… 경제 살리는 길은 지역부터”

###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뒤 지역 경제인과 오찬간담회 “군산 경제가 가장 어려워… 내 책임인 것 같아 무거운 마음 조선소 재가동 위해 다각도로 노력… 함께 이겨내야 할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한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것을 살리는 길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 참석 뒤 지역 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제 고향 거제와 통영도 조선이 무너지니 지역경제가 공

동화되고 황폐화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곳이 많지만 지역적으로는 군산이 가장 어렵다. 군산이 어려워니 전북 전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여기에는 구조적 요인도 있고, 오랫동안 진행된 원인도 있지만 나라의 어려운 일은 모두 대통령 책임 같아 마음이 무겁다”

고 했다. 이어 “군산은 조선소가 문을 닫는데 이어 설상가상으로 지엠(GM)마저 문을 닫아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두 업체의 비중이 25~26% 이르고, 여기에 협력업체와 관련된 음식점 서비스업까지 어려워져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앞서 참석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거론하며 “그곳에 202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를 만들려고 한다”며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미래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실제 도움으로 다가오는 데는 2~3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당장 어려움을 겪는 업체부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선 “군산의 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보려고 노력하겠다. 결국 함께 이겨내야 할 문제”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성산업과 특정지역에만 맡겨 두지는 않겠다.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 뒤에는 단팔뚝으로 유명한 군산의 명물 ‘이성당’ 빵집을 들렀다.

문 대통령은 “4년 만에 다시 왔다”며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출마 시절 이성당에서 간담회를 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주인과 반갑게 인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성당의 주력 메뉴인 팔뚝과 아재빵 등 10여가지 빵을 샀다.

지역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을 미리 준비했다가 계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전북은행, 서민금융부문 ‘국무총리 표창’ 수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30일 제3회를 맞이하는 금융의 날 서민금융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3회 금융의 날’ 행사에서는 저축, 서민금융, 금융혁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훈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서민금융 부문에 대한 수상은 서민금융 확대에 기여도가 높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서민금융 정책미션 및 현장 실무를 통해 서민금융 애로 해소에 기여한 전북은행은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전북은행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하여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이라는 경영이념으로 중서민을 위한 포용적금융 정책 방향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중금리대출 등 서민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전북은행 행영장 부행장은 “지역의 열악한 금융 환경 속에서도 도내 중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금리대출 및 저신용자를 위한 긴급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여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농협, 어린이 그림 공모전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사랑’ 어린이 그림을 10월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농업, 농촌이 줄 수 있는 소중한 가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그림 공모전은 전북도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경관, 풍경, 농촌체험, 전통문화 유산 등 농업, 농촌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선택, 참여하면 된다.

응모방법은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290) 우편, 택배, 방문 접수 가능하고 시상은 총 10명으로 상장과 도서상품권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지원단(240-30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들이 농업, 농촌이 주는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경사노위, 민주노총 없이 공식 출범 가능성 커졌다

### 문성현 “분위기는 민주노총 경사노위 꼭 같이해야 한다는 것 아냐”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민주노총이 빠진 채 공식 출범 가능성이 커졌다.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사노위 개문발차(開門發車, 문을 연 상태로 차가 떠남) 가능성과 관련 “민주노총이(사회적 대화에) 같이 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와 기대가 있어서 10월까지 기다려 봤는데 어렵게 됐고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민주노총이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조건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과 비공식 회동을 갖고 경사노위 공식 출범 문제는 참여 주체들이 정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문 위원장은 “최근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경사노위 공식 출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가 있었다”며 “대통령도 참석했으며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방침을 정하고 만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없었다”며 “사회적 대화는 제가 책임지고 정리해야 하는 문제로, 제가 참여 주체들과 논의해서 가닥을 잡겠다고 얘기 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관련 법 통과 이후에도 2개월 넘게 공식 출범하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민주노총이 지난 17일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의원대회를 소집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을 다루지 못한 채 내년 1월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 없이 공식 출범하거나 민주노총 참여를 계속 기다리는 방안을 놓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 위원장은 조만간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어떻게 할지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우선 출범시키는 쪽으로 참여 주체들의 입장이 풀리고 있어 개문발차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참여주체 중 한 곳의 문제 때문에 경사노위 출범이 마냥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내부 실무진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 “P2P금융의 편의성과 안정성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

### NH농협은행, 소상공인 전용 ‘P2P외담대API’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지난 3월부터 P2P금융플랫폼 회사 팝핀(주)(대표이사 신현욱)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API를 개발해온 끝에 소상공인 전용 P2P외담대API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P2P 외담대(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는 물품을 판매한 기업이 구매 한 기업에게 아직 대금을 받지 않아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담보로 P2P금융플랫폼을 통해 받는 대출이다.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명령어 묶음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 전용 P2P외담대 API는 은행의 특화된 오픈API로 P2P업체와 소상공인 간에 대출업무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이와 관련, 특허도 출원 해놓은 상태이다. 앞으로 P2P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P2P소상공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API를 개발해온 끝에 소상공인 전용 P2P외담대API를 출시했다.

인 전용플랫폼’을 개설한 후, NH농협은행과 제휴된 P2P금융업체를 통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동산담보대출 등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장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P2P외담대API를 통해 P2P금융의 편의성, 안정성을 더욱 높이

/김영태 기자

## 최종구 “증시 최근 반응 지나쳐… 금융위기 때완 확실히 달라”

### “컨틴전시 플랜 가동 기준은 시장 상황 판단해 결정”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국내 증시 폭락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나 추가순자산비용(PBR) 같은 지수를 감안할 때 최근 반응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3회 금융의 날 기념식

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정부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언제 어떤 조치를 할지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증시 안정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면밀히 재점검해 필요시 가동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여러 변수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어떤 지수가 얼마일 때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연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2008년 상황과 비교하면 확실히 다르다”며 “그때는 증시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과 단기자금시장의 불안도 컸는데 지금은 증시쪽만 반응하고 다른 쪽은 안정적”이라고 일축했다. 이

어 “외국인 자금이 최근 많이 이동한 것에 대해 국내 개인과 기관 투자자 태도가 지나치게 위축돼 있다”고 부연했다. 주요국 증시에 비해 국내 증시의 낙폭이 큰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몇가지 조치로 시장이 금방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보다 장기적인 호흡을 갖고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시스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